

##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적 복지로”

전국 최하위권의 사회복지수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인천 사회복지의 개혁과 변화

- 인천사회복지연합 준비위원장 **김재복** 사회복지사 -

취재/기사 : 심 명 주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사진 : 김 희 현 (프리랜서)

지난 3월 25일 인천대학교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맴 돌았다.

이유인 즉, 각종 사회관련 지표에서 경제 수준이나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인천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사회복지관련 정책들은 기존 사회복지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서의 침병인 현업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과 직업성취도는 매우 취약한 현실이고, 지역자원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참여복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열악한 인천지역의 사회복지 현실을 개선하고 복지, 인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너무나도 절실했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인천사회복지연합 발족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출발과 함께 인천 지역의 지역적 문제와 사회복지전반의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순수 민간단체인 “인천사회복지연합”이 만들어 졌다.

이제 출발선에 섰고,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밝은 미래가 보이는 “인천사회복지연합” 준비위원장인 김재복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았다.

### 인권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꿈 꾀다 - 제 3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활동

해마다 사회복지 환경들은 변화하고 있고, 그 환경적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복지현장을 변화시킨다. 많은 변화들 중 큰 이슈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일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천사회복지연합”의 출범이다.

“인천사회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열악한 인천의 사회복지 현실을 개선하고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최 일선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환경과 업무성취도를 개선하며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다소 집행위주의 시혜적 성격을 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권 그리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지를 꿈꾸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 협의체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에서, 각 단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복지연합을 통해 권리적 복지로의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감시 및 대안 제시, 사회복지예산 확충 및 집행 적정성 감시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단체든 ‘각성’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적 자기반성을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구요. 늘 각성 상태에 있는 개인과 단체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며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복지는 기간(基幹) 사업

### 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생명 평화”

사실 김재복 사회복지사는 우리에게

‘마리아 수녀회 김재복 수사’ 로 더 알려져 있다.

생명, 평화, 노동, 생태, 통일, 인권 특히 반전운동, 국가보안법철폐 단식 등의 활동 때문이다.

“무모한 살생을 전제로 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나 민주인사를 처벌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딱 하나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회 기간 사업이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에 ‘생명 평화’를 중심에 둔다고 한다.

생명이나 평화를 따로 놓지 않고 ‘생명 평화’를 함께 중심에 둘 때,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활동들이 같은 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면서, 사회운동가이면서, 사회복지사인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그는 사회복지사 김재복으로 불리는 것을

많이 어색해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는 스스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난 활동들은 또 다른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게 한다.

“동사무소에서 파악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독거 노인 분들을 돕는다거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서 돕다가 이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면 그곳을 떠나는 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김재복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한번 제외되면 다른 모든 복지서비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집행위주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의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를 거듭 주장한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재정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각 재정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일이 최소한의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이뤄가는 길일 것이다.

## 골고루 가난한 사회

### 균형을 되찾기 위한 불편함과 어려움

그는 잘 살게 되어야 사회복지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많이 발달한 때는 노동자운동, 활동이 활발했을 때였다고 하며, 그래서 그는 그저 골고루 가난한 사회를 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복지 또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 조금은 불편해 보이고, 조금은

“사회복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고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 기간사업입니다.” 그는 모든 활동에 ‘생명 평화’를 중심에 둔다고 한다. 생명이나 평화를 따로 놓지 않고 함께 중심에 둘 때,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활동들이 같은 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인이면서 사회운동가이면서 사회복지사인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어려워 보이는 길을 누군가 가야하지 않을까?

### 함께 하는 삶, 김재복

이번 인터뷰는 서울의 한 수도원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이력만큼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던 김재복 사회복지사. 다행히도 이날 대학로 행사 참여를 위해 서울행을 해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수수한 복장에 털털한 말투, 짧은 머리, 본인이 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은 채 대화는 시작되었다. 이 모습에서는 사회복지사, 저 모습에서는 노동운동가, 또 다른 모습에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너무 나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 흔히들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모습 하나하나에 진지함과 신중함이 묻어나왔다.

생명 평화를 중심에 두고 일하며 언제나 각성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김재복 사회복지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하지 않는 정신일 것이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이뤄냈느냐 보다는 내적인 동기들을 묻고 바로 잡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스스로를 깨우는 일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일을 김재복 사회복지사와 “인천사회복지연합”이 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